

아마미코소 신사

운수대통을 기원하는 마쓰바라 6 개 신사 순례지의 하나. 스사노오노미코토, 아마노코야네노미코토, 고토시로누시노미코토를 제신으로 모신다. 옛날에는 아마기시궁이라고도 불렸으며 아마미 지명의 유래가 된 유서 깊은 신사이다. 헤이안시대 초기(806~809)에 창건되었다고 전해진다. 10 세기 전반 기년제가 거행될 즈음에 국가가 편찬한 고대 율령집 속의 엔기시키 신명장에 이름을 올린 유서깊은 신사이다.

경내에는 메이지시대 초기까지 아마미산이라는 산호를 가진 신사에 부속된 절이 있었다. 남쪽 및 동쪽에 세워진 문은 이 절의 산문이다. 참배당 앞의 한 쌍의 고마이누 대좌에는 ‘天美山’, ‘阿闍梨快道之代’, ‘文化四年九月’ 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어 이 절의 승려가 1807 년에 건립하였음을 알 수 있다.

참배자가 손이나 입을 깨끗이 씻는 분주의 동쪽에는 ‘行基菩薩安住之地(교기 보살 안주의 땅)’ 라는 명문이 새겨진 비석이 세워져 있다. 에도시대에는 이 지역에 나라시대의 고승 교키 스님이 거주하였다는 전승이 있다. 신사 북서쪽의 야마토가와 강에 놓여 있는 다리를 교키 다리라 부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참배당 앞에는 금줄을 묶은 시메나와이시 돌이 놓여 있는데 와카미야 하루타카 신관이 러일전쟁 후인 1907 년에 아마미와 현 오사카시 히가시스미요시구 야타에서 출정한 지역 사람들을 표창하고 이름도 새겨 넣었다.

동문의 ‘郷社阿麻美許曾神社(고샤 아마미코소 신사)’ 라는 명문이 새겨진 사호 포석(1935 년)의 휘호는 가스가타이사 신사(나라시)의 에미 세이후 신관이 썼는데, 그가 메이지시대 전반에 신관의 신분으로 이곳에 부임한 와카미야 하루타카가 가스가타이사 신사의 신직이었기 때문이다.